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성경: 예레미야 29장
10-14절**

Tag: 복,만족,번영신학,구약,예레미야

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29:10-14)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말씀 11절에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인데, 그 계획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 계획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뉘앙스는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사시키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이미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다. 선하고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미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계획을 실행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미 죽임을 당하거나, 애굽으로 도망하였다.

당시에도 바벨론에서 어떤 무리들이 반항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어떤 거짓 선지자는 우리는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로부터 편지가 도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신다.

만약 우리에게 재앙을 계획하셔도 그것은 수단일 뿐이다. 즉, 재앙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파라독스냐고 할지 모르지만, 사정은 이렇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한다. 저 사람이 나쁘니 벌을 내려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라고 하신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앙갚음을 계획한다. 자신은 한 대를 맞았지만, 두 대를 때린다. 그러면 애초에 죄를 범한 사람도 억울함을 느낀다. 이런 일이 반복 되면서 온 나라가 죄로 범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 그리고 각 사람이 범한 대로 심판 하신다.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죄에 대한 형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남은자들을 골라내신다. 죄를 뉘우치는 자, 회개하는 자,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작정하는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용서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등등 하나님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통과하여 다시금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결국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가정을 꾸미도록 하신다.

개인적으로는 그 여정이 길수도 있다. 왜냐면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또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반복 되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죄를 범하면 앓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저주를 이기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된다.

혹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복되고 잘되는 것이다. 절대로 이것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또 내가 한가지 잘못을 했다고 한가지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은 한번 비가 왔다고 댐이 무너지지 않는 원리이다.

그래서 한번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느낌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잡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 하나님은 예의 주시하신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감동이나 인생의 맛을 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저주를 쌓아 두신다. 그런데 벌써 사람은 습관이 되어서 의례히 그러는 줄 안다.

사람에게는 습관이 있고, 그것이 좋지 않는 습관일 경우에는 그를 파멸로 이끌어 간다. 습관 때문에 한번 잘못했다고 그 잘못이 한번으로 그치지는 않는다는 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재앙은 그 습관을 단절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 오히려 그런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마치 진흙이 불가마에서 형질이 변해서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그 죄의 습관이 소멸될 수 있다. 그래서 재앙은 평안의 반대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평안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앙을 당했을 때 해야 할 일까지 세세히 말씀해 주셨다.

5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재앙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집을 짓고 살아라.

예루살렘에 있는 아름다운 내 집 그리워 하면서 자포자기 하지 말고, 그곳에서도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도 일구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라.

그 형편에 맞도록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6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으며 번성하며 살아라.

일상적인 일을 성실하게 하며 살아라. 농부처럼 사는 것이 1차적인 삶이다. 크게 부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고려인;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그 땅은 남의 나라이니, 네가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업수히 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너희를 본토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7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리고 그 곳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내도록 하여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과 어울려 잘 살아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 때문에 그 성읍에 평안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8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꾀어 듣고 믿지 말라

-영적으로 또 미혹되지 말고, 점쟁이 말을 믿지 말고, 심지어 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꿈을 꾸더라도 믿지 말라.

-심지어 선지자랍시고 엉뚱한 말을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외에 다른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말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한 말만 믿고

영분별에 주의하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심지어 이방 땅이고 이방 나라인데 너희에게 어려움이 없겠느냐?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여기는 이방 땅이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위기 가운데 거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절박한 형편에서는 더 기도가 잘 된다.
반면 평안하면 기도에 게으르기 쉽다.
그러니 평안할 때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큰 복이 되겠는가?
진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평안히 거하면서도 온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적인 관심이 많으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온 맘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때는 내가 절박할 때 뿐만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절박할 때에도 그렇게 한다.

14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민족 단위로 사명을 주신다. 우리 민족은 이 사명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을 위

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

20 디모테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딤후6:20-21)